**과제문③**

**다섯 손가락 이야기**

다섯 개의 손가락이 사이 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지 손가락이 말했어요.

“내가 최고야.　최고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검지 손가락이 조용히 나서며 말했어요.

“너희들, 저기 날아가는 새 좀 봐. 저기 저 높은 건물 좀 봐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킬 땐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자,　키다리 장지 손가락이 말했어요

“흥, 너희들 나랑 키 좀 대볼래?

자 어때? 내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어머머 머머, 애들아! 너희들 예쁜 반지는 누가 끼는지 알고 있지?

바로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멋쟁이 약지 손가락이 뽐내며 말하자, 아주 작은 새끼 손가락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거야. 코가 간지러울 때, 귀가 간지러울 때, 친구와 약속을 할 때 내

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깐 내가 최고지.”

그때, 다섯 손가락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손바닥이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너희들 손바닥인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손가락들은 손바닥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 모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때부터 손가락들은 뒤로는 구부러지지 않고 앞으로만 구부러진데요.



課題文③

５本指のお話

5本指が仲良く暮らしていました。

ある日、親指が言いました。

「僕が一番だ。一番だと言う時もこうするだろう。　だから、僕が一番だ。」

人差し指が静かに前に出て言いました。

「君たち、あそこで飛んでる鳥を見てごらん。あの高い建物を見てごらん。

このように、何かを指さす時、僕がするだろう。だから、僕が一番だ。」

すると、一番長い中指が言いました。

「おーい、君たち、僕と背比べしてみるかい？

さあ、どうだ？僕が一番大きいだろう！　だから、僕が一番だ。」

「あらあら、君たち！綺麗な指輪は誰がつけるか知ってるよね？

私でしょ。だから、私が一番よ。」

おしゃれな薬指が威張りながら言うと、とても小さい小指も負けじと言いました。

「何を言っているんだ。鼻がかゆくなったり、耳がかゆくなったり、友達と約束するとき

僕がいないとどうするの。だから、僕が一番だ。」

その時、五本指たちの話を静かに聞いていた手のひらが言いました。

「あー。うるさいなあ。君たち手のひらの僕がいなければ意味がないだろう？」

指たちは手のひらの話を聞いて恥ずかしくなり、みんなうつむきました。

この時から、指たちは後ろに曲がらず、前にだけ曲がるようになりました。

